

거창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

거창군 공무원불자회(회장 강창남)는 5월 30일 거창포교당 심우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3월 18일 창립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법회에는 회원 40여명을 비롯해 함양, 함천, 의령 등 경남지역 공무원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거창시암연합회장 심우스님은 "지역불교 발전과 포교 활성화에 공무원 불자들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성북승무사무소 범우회 환경법회

성북승무사무소 범우회(회장 박운화)는 4일 홍천 수타사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했다. 매년 열리는 방생법회를 대신해 열린 이날 법회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108배 참회와 환경발원문 낭독, 수타사 주변 환경정화 등으로 열렸다. 한편 범우회는 18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초발심자경문 강독법회를 봉행한다.



석불선양회 용암사지 석불친견

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2일 전남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을 찾아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고행 땀 그리고 기쁨'을 주제로 열린 이번 법회는 도갑사 새벽예불과 108참회, 용암사지 환경정화도 함께 진행됐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월드컵 8강 진출과 이산가족 상봉, 선거에서의 선량한 일꾼 선출 등을 발원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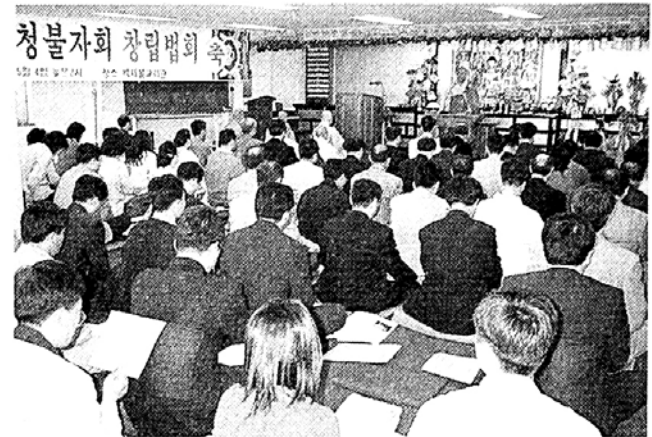
대전지역 공직단체 불자들 불자회 결성·연합활동 개시

시청·5구청·도청·정부 3청사 연합법회 봉행 공무원불자련 가입·충남교육청불자회 곧 창립

최근 직장단위 불자회의 직장내 실행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공직단체 불자들이 불자회 결성은 물론 연합활동을 강화해 주목된다. 그동안 대전지역은 불교의 불모지라 불릴 만큼 교세가 미약했으나, 공직단체를 중심으로 직장불교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덕구청 불자회와 3년전 중구청불자회가 창립된데 이어 4월 19일 서구청, 5월 4일 대전광역시청, 5월 16일 동구청, 5월 23일 유성구청 불자회가 연이어 창립됨으로써 대전지역

공무원 불자회가 모두 결성됐다. 대전시청 불자회와 5개 구청 불자회는 5월부터 매월 한차례 정부 제3청사 반야회, 충남도청 불자회와 연합법회를 열어 연합활동을 시작했고, 공무원 불자연합회에 가입하는 등 전체 공무원 불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있다. 대전시청 불자회를 중심으로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 교육청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불자회가 창립을 앞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미 회원 모집에 들

어갔으며, 연내 창립을 목표로 발기인 모임과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대전지역 직장불교 활성화 바람은 지난해 백제불교회관 개원에 힘입은 바 크다. 3월에는 충남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의 불교회가 결성되며 공무원 불자들의 결속을 가속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스님(공주갑사 주지)은 대전지역 직장불교회와 실행단체가 실행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관을 전연 개방하는 한편 광역시청과 구청의 불자들을 결집해 불자회 창립을 지원해 왔다. 대전·충청



대전지역 공직단체 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 등 결속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진은 5월4일 열린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창립법회.

포교사단 등 백제불교회관에 입주한 단체협의회도 이를 적극 도와왔다. 대전·충청 포교사단 김경범 단장은 "다른 직장직능 단체의 법회 활성화 모습과 각 직장불교회 결성을 병행해 대전지역 불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철마는 자비를 믿고' 회향 성금 5백만원 이웃돕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비정신의 실천을 위해 벌여온 '철마는 자비를 믿고' 운동을 회향한다. 4월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회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온 철불협은 모금된 5백여만원의 성금을 철도잡지 <레일로드>의 이웃돕기 모임인 '사랑의 화원'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일부는 북한동포 지원물품 구입에 사용된다. 전달식은 29~30일 영천 은혜사에서 열리는 철불협 수련회에서 갖기로 했다. 정찬연 사무국장은 "철도불자와 가족들의 정성이 '소년소녀가장과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불자련 중국성지순례

8월1~17일, 장수 죽림정사서 합동수계 법회도

공무원불자들이 직장불자회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례는 원광석굴, 대동 화엄사, 현공사, 오대산 성지, 서안 법문사, 북경 등을 참배하며, 각 회마다 35명씩 150명의 공

무원 불자들이 여름휴가를 활용해 순례길에 오른다. 한편 공불련은 2일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제3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도문스님(죽림정사 조실)이 계사로 나선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노옥섭 회장 등 전국 공무원 불자 5백여명은 계를 수지하며 참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 후에는 진안 마이산 탐사와 금당사를 참배했다.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일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8월1~17일에는 중국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연비를 받고있는 노옥섭 회장.

직장직능단체 지도자 수련회

7월6~7일 동화사서, 협의체 구성 논의

전국 직장직능단체 임원과 지도자들이 7월 6~7일 대구 동화사에 모여 수련회를 갖는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200여 직장직능단체 지도자들이 참여해 동일 직종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직능단체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신앙심 고취, 단체인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한다. 또 직장직능단체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법회를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체

합-1'박 2일간의 출가'라는 주제로 발우공양, 새벽예불, 참선 실수 등 수행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독경, 108참회문, 3보 1배, 발원문 작성 및 봉안 등 신심교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재가불자의 실행생활, 채워야 할 나와 버려야 할 나, 종교와 직장 등에 대한 외부 강사의 강의와 토론도 펼쳐진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 400여 직장직능단체와 연합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지역별 차량 배정, 참가자 접수 등 구체적인 수련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양희 주임은 "지도자 자질을 함양하고 불교적 소양을 갖출 수 있

는 수련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서인천 화력 파업...불자회 창립 지연

직장의 파업으로 인해 충남대병원과 서인천화력의 불자회 창립이 지연되고 있다. 5월 28일 창립 예정이던 충남대병원 불자회는 의료보건노조의 연대파업으로 불자회 창립이 연기됐다. 충남대병원 불자회는 파업 장기화로 휴유증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서인천화력 법우회도 불자회 창립을 위해 회원 모집에 돌입, 20여명의 불자들이 가입했으나, 파업의 후유증으로 창립총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서인천화력 조장주 불자는 "빠른 시일내 직장이 안정돼 직장에서 실행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도시철도공사 범우회 관음사 참배

서울도시철도공사 범우회(회장 이정환)는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사당역 인근 관음사를 순례한다. 이날 순례에서는 전통사찰 문화재 관람과 사찰에 정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범우회는 매월 회원과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하철역 인근의 사찰을 순례하는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수지침 강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2일 오후 5시20분 사내 금강원에서 수지침 강좌를 마련한다. 이날 강좌는 수지침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강연자 불자가 특별 강사로 나서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수지침 상식을 강의한다.

대우기계·KAI불교회 축구대회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불교법우회(회장 곽차식)는 18일 창원 의동초등학교에서 축구대회를 갖는다. 불교법우회는 하절기를 맞아 회원 친목과 체력 단련을 위해 마련한 것. 25일에는 원광스님을 초빙, 성주사 설법전에서 금강경 강의를 들는다.

제 15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쉼터입니다. 불교는 이천년에 접어들어 의료복지 포교에 깊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고 의료복지에 있어 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어가고 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에는 교육, 관리에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절적으로 향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 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완하여 불교 의료복지에 기여하고자 정토마을에서는 제 15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각계 스님들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 일 정 : 2002년 6월 30일 ~ 2002년 7월 7일 7박 8일
 - ◆ 장 소 : 경북 정토마을 미연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 교육대상
 - 스님 및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재가법사, 포교사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앙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 인 원 : 신·약남, 여 25명 ◆ 연 령 : 35세 ~ 65세 ◆ 교육수강료 : 19만원
 - ◆ 기금출 : 공동 - 반명암면 컬러사진 4장,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개인 세면도구, 108염주 스님 - 기사장삼, 목탁
 -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 ◆ 원서마감 : 2002년 6월 25일
 - ◆ 교육 무 월동 - 수료증 발급
 - 한국불교 아미타호스피스 협회에 등록되며 전국 각 병원, 가정, 기타 의료기관에서 협회의 관리를 받으며 불교전문 호스피스로서 활동
 - ◆ 문의처 : 정토마을 사무국 TEL : (043) 298-2258, FAX : (043) 298-1457
[한국 불교 아미타호스피스 협회의 호스피스 교육은 국내 유명 강사진과 함께 의료복지 포교 및 기금 앙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 정토마을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원봉사단 아미타호스피스회
정 토 마을 원장 능 행 합장**

제2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세 계 로 가 는 기 차"

본 협회에서는 월드컵의 해를 맞아 '세계로 가는 기차'라는 주제로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익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이번 강습회에 함께 하시어 포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2546년 6월 22일(土) 오후 2시 ~ 23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교통편 안내] 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하차(6번출구) 도보5분
3. 교육내용

민요와 가요가 만날때...
클한 찬불동요로 여름을 시원하게...
올 여름불교학교의 밤은 포크댄스로 우아하게...
월드컵송과 함께 신나는 레크댄스의 세계로...
21C 버전 세계의 명랑 운동회
내손으로 지구촌을 만들어 볼까요?
4. 참 가 비 : 40,000원 (회원은 30,000원, 군종병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귀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대) (본회 사무국)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 카페)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